

# 접사 ‘-꾼’과 그 선행어의 의미

— ‘-꾼’ 파생 명사의 형성 조건

최윤\*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인칭 접미사’ 중 하나로 논의되는 접사 ‘-꾼’의 분포 양상과 분포 가능성을 분석하여 ‘-꾼’ 파생 명사의 선행어와 접사 ‘-꾼’의 의미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꾼’ 파생 명사의 형성 조건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결과, 접사 ‘-꾼’에 선행할 수 있는 선행어의 의미 조건과 접사 ‘-꾼’의 의미 자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특정 어휘가 접사 ‘-꾼’에 선행하여 파생 명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휘가 [+행위], [-사람]의 의미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만약 일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선행어가 ‘([-행위]), [+사람]’의 의미 자질을 가지거나 ‘([-행위]), [+양(수량)]’의 의미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특수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어는 자신이 함의하고 있는 행위의 범위가 제한적일수록 ‘-꾼’과 결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함의 행위의 제한성’을 선행어의 수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접사 ‘-꾼’의 핵심적인 의미 자질은 [+반복], [+사람]으로 정리되었으며, 특히, 기존에 논의되었던 [+비해]의 의미 자질은 접사 ‘-꾼’의 기본적인 의미 자질로 볼 수 없음을 밝혔다. ‘-꾼’ 파생 명사가 [+비해]의 의미 자질을 가지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며, 특수한 경우에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본 연구는 파생 명사의 결합적 의미를 접사의 독립적 기여로만 보지 않고, 선행어의 의미 자질과 접사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접

---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사업팀 선임연구원 /  
E-mail: icarusyoun@kangwon.ac.kr

사 ‘-꾼’과 그 선행어의 의미뿐 아니라 이들의 결합 조건과 결합 시 형성되는 의미 도식까지 검토함으로써, 한국어 접사와 접사 파생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의미론적 이해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꾀, 접사, 접미사, 인칭, 인칭 접미사, 파생어, 파생 명사, 의미, 선행어, 어근

## 1. 서론

이 연구는 소위 ‘인칭 접미사’ 중 하나로 논의되는 접사 중 하나인 ‘-꾼’의 분포 양상과 분포 가능성을 확인하여 ‘-꾼’ 파생 명사의 선행어<sup>1)</sup>와 접사 ‘-꾼’의 의미를 살피고 이를 통해 ‘-꾼’ 파생 명사의 형성 조건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꾼’은 선행어에 [+사람]의 의미를 더하며 (선행어와 관련한) 일이나 행위를 하는 사람<sup>2)</sup>이나 (선행어와 관련한) 사물이나 특성을 가진 사람<sup>3)</sup> 등의 의미를 가진 파생 명사를 생성한다. 다음은 〈우리말샘〉에서의 접사 ‘-꾼’에 대한 내용이다.

- (1) ㄱ. -꾼 「002」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살림꾼. 소리꾼. 심부름꾼. 씨름꾼.

- ㄴ. -꾼 「003」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즐겨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낚시꾼. 난봉꾼. 노름꾼. 말쑥꾼. 잔소리꾼. 주정꾼.

- ㄷ. -꾼 「004」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1) 본고에서는 ‘-꾼’에 선행하는 요소가 ‘-꾼’과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꾼’에 선행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여 이들을 ‘-꾼’과의 결합을 배제하고 의미적, 형태적으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꾼’에 선행하는 요소를 ‘선행 어근’이나 ‘선행 명사’ 등으로 지칭하지 않고 단순히 ‘-꾼’ 앞에 선행하는 요소로서의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선행어’로 지칭한다.

예) 구경꾼. 일꾼. 장꾼. 제꾼.

ㄹ. -꾼 「005」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 낯잡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과거꾼. 건달꾼. 도망꾼. 뜨내기꾼. 마름꾼. 머슴꾼. 모사꾼.

ㄷ. -꾼 「006」 「접사」 ((일부 명사나 부사 뒤에 붙어)) ‘어떤 사물이나 특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건성꾼. 피꾼. 덜렁꾼. 덤병꾼. 만석꾼. 재주꾼. 천석꾼.

위 (1)은 한국어 화자의 직관과 비교적 잘 일치하며 뜻풀이와 예에 일견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눈에 띈다. 먼저, (1ㄱ)과 (1ㄴ)의 예시가 각 뜻풀이와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1ㄱ)의 예인 ‘살림꾼’이 (1ㄴ)에 적용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나 (1ㄴ)의 ‘낚시꾼’이 (1ㄱ)에 적용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 다음으로 (1ㄷ)의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의 의미 역시 이해하기 힘든데, (1ㄷ)의 예인 ‘구경꾼’, ‘일꾼’ 등이 그 자체로 ‘군중(모인 사람)’의 의미를 가졌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1ㄹ)에서 말하는 ‘낯잡는 뜻을 더하는’ 의미 기능 역시 문제가 있다. 일단 뜻풀이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 ‘낯잡는 뜻을 더한다”라는 설명에서, 파생 접사 ‘-꾼’ 자체가 [+사람]의 의미와 함께 [+낯춤]의 뜻을 모두 더한다는 것인지, 이미 [+사람]의 의미를 가진 선행어에 ‘-꾼’이 결합하여 [+낯춤]의 뜻만 더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만약 전자라면 (1ㄹ)의 예보다 (1ㄴ)의 ‘난봉꾼, 말쑥꾼, 잔소리꾼, 주정꾼’ 등에서 ‘비하’의 의미를 더욱 느끼기 쉬울 수 있으며 후자라면 이미 [+사람]의 의미를 가진 어휘에 왜 다시 [+사람]의 의미를 덧붙이는 ‘-꾼’이 결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1ㅁ) 역시 ‘어떤 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의 의미에 해당하는 예로 ‘만석꾼, 천석꾼’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석’이나 ‘천석’이 이미 ‘많은 양을 함의하고 있으므로 ‘-꾼’이 “많이 가진”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듯, 사전의 뜻풀이와 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사전이 ‘-꾼’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포착하여 기술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sup>2)</sup> 그만큼

‘-꾼’의 분포와 의미가 객관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접사 ‘-꾼’과 그 선행어를 구분하여 이들의 의미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파생 명사의 형성 과정에서 접사와 선행어가 수행하는 역할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기존 논의에서는 파생어의 모든 의미를 접사 ‘-꾼’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분석하여, 접사 ‘-꾼’의 의미를 정확히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선행어가 가진 고유한 의미적 자질과 접사와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결합적 의미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어와 접사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 결합적 의미를 선행어의 의미적 자질을 확장하거나 변형한 결과로 다루기로 한다. 이를 통해,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선행어가 가지는 역할을 재조명하고, 접사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접미사와 접미사 파생 명사에 대한 의미론적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 가운데 접미사 ‘-꾼’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다양한 인칭접미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일부로 ‘-꾼’을 다룬 연구에는 이철우(1983), 하치근(1985), 나은미(2004), 송혜진(2007), 손춘섭(2012), 김영선·박주형·임종주(2015) 등이 있다. 단일 접미사 ‘-꾼’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변영수(2012), 권정숙(2014), 다키구치게이코(2013), 푸량(2019)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변영수(2012)와 권정숙(2014)의 논의는 접사 ‘-꾼’의 의미를 다각도로 살핀 논의이며 다키구치게이코(2013)과 푸량(2019)는 각각 일본어와 중국어 인칭접사와의 비교·대조 언어학적 관점으로 ‘-꾼’의 의미를 살핀 논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 가운데 이철우(1983), 하치근(1985), 변영수(2012), 손춘섭(2012), 권정숙(2014)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어 고유어 접사 ‘-꾼’과 그 선행어의 근본적인 의미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들은 앞의 논의 과정에

2) 물론, 사전은 실용성과 범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같은 층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많은 어휘들과 이에 관련된 현상을 두루 고려해서 기술되고 구성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의 특성으로 인한 피차못할 문제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특정 어휘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 있어 연구의 기본 자료이자 한국어 화자의 어휘 의미 인식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사전의 뜻풀이와 예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임을 밝힌다.

서 연구 내용에 맞춰 검토될 것이다.

## 2. ‘-꾼’ 선행어의 의미와 조건

### 1) ‘-꾼’ 선행어의 의미

서론의 (1)에서 언급했던 접사 ‘-꾼’의 사전 뜻풀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   ㄱ.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잘) 하’는 ‘사람’  
      ㄴ.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즐거) 하’는 ‘사람’  
      ㄷ. ‘어떤 일’로 ‘모인’ ‘사람’  
      ㄹ. ‘사물이나 특성’을 ‘많이 가진’ ‘사람’  
      ㅁ. ㄱ이나 ㄴ에 ‘낮잡는 뜻’을 더함

위의 정리된 사전의 뜻풀이를 바탕으로 하면 접사 ‘-꾼’은 대체로 다음과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 (3)   ㄱ. [+일]  
      ㄴ. [+사람]  
      ㄷ. [+전문]  
      ㄹ. [+습관]  
      ㅁ. [+복수(複數)] 또는 [+모임]  
      ㅂ. [+많음]  
      ㅅ. [+낮춤]

본 연구에서는 접사 ‘-꾼’과 그 선행어가 파생어의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의미 자질이 선행어에 의해 주도되거나 접사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결합

적 의미로 형성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파생어 형성의 출발점으로서 선행어가 가지는 의미적 자질과 이 자질이 접사와 결합하며 확장 또는 변형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꾼’의 선행어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연구 가운데 하치근(1985), 변영수(2012)의 논의를 주목할 수 있는데 먼저, 하치근(1985)에서는 어근과 파생어 사이의 구조적 관계 및 의미, 기능별 유형을 밝힘으로써 현대 국어 인칭파생명사의 조직과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꾼’은 높은 파생력을 가진 접사로서 명사 어근, 불구 어근과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였고 이때 어근이 [-인간] 자질을 갖고, ‘-꾼’은 <+인간, + $\alpha$ >의 자질을 첨가시키는 작용을 하며 특히, ‘행위명사’에 붙어 ‘어떤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sup>3)</sup>.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행위명사’에 붙는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은 변영수(2012)에서도 이어지는데, 변영수(2012)에서는 ‘-꾼’은 주로 [동작], [태도], [속성], [사물], [사람], [장소] 등의 의미 자질을 가진 선행어근이 오는데, 특히 선행어근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의미 속성은 (‘행위’를 포함한) [동작]이라고 분석하였다. ‘-꾼’ 선행어에 관련한 [+동작] 또는 [+행위]의 자질에 대한 일련의 분석은 ‘-꾼’ 선행어의 의미와 그를 통한 선행어 조건을 판정하는 데 매우 핵심적이다.

앞서 (1)에서 <우리말샘>의 접사 ‘-꾼’의 다섯 가지 의미에 대한 예로 등장했던 ‘-꾼’ 파생 명사는 모두 28개이다. 이들을 선행어만 추출하여 [+동작] 또는 [+행위]의 의미 유무 및 정도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4가지 정도로 유형화가 가능하다<sup>4)</sup>. 지금부터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동작] 또는 [+행위]’를 ‘[+행위]’로 일원화

3) 이 연구에서는 인칭접미사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의미 ‘ $\alpha$ ’를 해당하는 아홉 가지 자질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존칭’에 해당하는 ‘-또’와 ‘-마님’을 제외하고 모든 인칭접미사를 ‘비칭’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와 차이가 있다. 이 아홉 가지 자질은 ‘-꾼’만이 아닌 한국어 인칭접미사 전체에 해당하는 자질로 보았다. 자질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버릇이나 정도가 지나침을 얹잡아 이름. ② 신체적으로 결합이 있음. ③ 습관적 직업적으로 행동함. ④ 지역 특성을 얹잡아 이름. ⑤ 인격적으로 쓸모 없음. ⑥ 어떤 사람의 무리를 나타냄. ⑦ 귀엽게 이름. ⑧ 높임. ⑨ 상황적 낮춤.

4) 본고에서는 <우리말샘>에서 접사 ‘-꾼’의 예시로 등장하는 28개의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본 연구가 접사 ‘-꾼’과 선행어의 의미 및 결합 조건의 분석을 연구 목표로 하고 있기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행위]

- (4) ㄱ. 살림, 소리, 심부름, 씌름, 낚시, 노름, 잔소리, 주정, 구경, 말썰, 일, 도망,  
모사  
ㄴ. 장, 제, 과거

(4)는 (1)의 사전 뜻풀이에 제시된 예시 가운데 [+행위]의 자질을 가진 명사들로서 (4ㄱ)은 그 자체로 행위를 나타내거나 ‘-하-’와 결합하여 동사가 될 수 있는, 동사성이 강한 명사들이다. (4ㄴ)은 자체로 행위를 나타내거나 ‘-하-’가 결합하여 동사가 될 수는 없는 명사들이지만 ‘장, 제, 과거’는 특정 ‘인원’이 특정 ‘역할’로서 ‘참여’하는 ‘행위’가 상정될 수 있다는 점, 각 명사가 ‘보-’, ‘지내-’ 등과 같은 특정 동사와 연어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동사성을 가진 명사들로 평가할 수 있다. (1)에서 살펴 본 사전의 예시 중 대부분의 ‘-꾼’ 선행 명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 (5) ㄱ. 건성  
ㄴ. 덜렁, 덤병

(5)는 (1)의 사전 뜻풀이에 제시된 예시 가운데 ‘태도’나 ‘자세’와 관련한 어휘들로서, (4)와 동일한 수준의 [+행위]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5ㄱ)의 ‘건성’은 ‘어떤 일을 성의 없이 대충 걸으리만 한다’는 의미를 가진 명사라는 점에서 동작성을 함의한다. (5ㄴ)의 ‘덜렁’과 ‘덤병’은 명사가 아닌 부사

---

때문인데,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제한적 연구가 필수적이라 판단했다. 이를 위해, 인칭 접사 ‘-꾼’이 파생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문법적, 의미적으로 검증된 연구 대상이 필요하였으며 이상의 28개 예시가 ‘-꾼’ 파생어로서의 대표성을 지닌 적합한 연구 대상 자료라 판단하였다. 결론 부분에 후술하겠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사전의 등재어뿐만 아니라 말뭉치 자료, 신어 및 임시어 자료를 활용하여 논의를 확장하고, 본 고에서 제시된 논의를 다양한 자료에 적용하여 검증할 예정이다.

로서 다른 (4)나 (5ㄱ) 등의 선행어들과 형태적으로 다르나 각각 ‘가벼운 행동’과 ‘들뜬 행동’을 의미하므로 [+행위]의 의미 자질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

## (6) 난봉

(6)은 (1)의 사전 뜻풀이에 제시된 예시 가운데 여러 의미를 가진 어휘이다. 난봉의 사전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7) ㄱ. 난봉 「001」 「명사」 말과 행동이 착실하지 못하고 술과 여자에 빠져 지저분하게 하는 짓.

ㄴ. 난봉 「002」 「명사」 허랑방탕한 짓을 일삼는 사람.

‘난봉’은 ‘착실하지 못한 말과 행동’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데, 이와 같이 특정 명사가 ‘어떠한 행위’의 의미와 ‘어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 해당 명사가 ‘-꾼’의 선행어가 될 때, [+행위]의 의미를 선택하는지,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의미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전자인 [+행위]의 의미를 선택한다고 본다. 첫째로, [+행위]의 의미 자질이 ‘-꾼’ 선행어의 핵심 요소라는 점이다.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의미 역시 [+행위]의 의미 자질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 의미의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행위]의 의미는 다소 퇴색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꾼’이 [+사람]의 의미를 추가한다는 점이다. ‘-꾼’의 핵심적인 의미 기능이 선행어에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라면 [+사람]의 의미를 가진 선행어에 [+사람]의 의미를 다시 더하는 것은 문법적, 의미적으로 다소 불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5)</sup>.

5) 후술하겠지만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에 ‘-꾼’이 결합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렇게 제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단순히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더하게 된다.



하치근(1985), 변영수(2012), 권정숙(2014) 등의 선행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꾼’ 선행어(선행어근)의 ‘동사성’이다<sup>6)</sup>. 즉, ‘-꾼’의 선행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의미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행위]의 의미 자질이 ‘-꾼’에 선행할 수 있는 요소의 핵심적인 의미이자 근본적인 의미로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 (2) [-행위]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뚜렷한 [+행위]의 의미 자질을 가진 것으로 보기 힘든 선행어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8) 전달, 보내기, 마름, 머슴

(8)은 (1)의 사전 뜻풀이에 제시된 예시 가운데 뚜렷한 [+행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든 예들 중 일부이다. 이 예들은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들로서 (4-)의 ‘심부름, 씨름, 낚시, 노름’ 등에 비해 [+행위]의 의미는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다<sup>7)8)</sup>. 그러나 사전의 뜻풀이에 따르면 ‘전달’은 ‘놀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짓을 하는 사람’을, ‘보내기’는 ‘일정한 처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모두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뚜렷한 행위적 특성’을 가진 사람을 칭하는 명사임을 주목해야 한다. 즉, ‘사람’의 의미를 가진 명사에 ‘-꾼’의

6) ‘동사성’을 의미하는 술어는 각 연구에 따라 다르나 본고에서는 ‘동사성’ 또는 [+행위]의 의미 자질로 설명한다.

7) 〈우리말샘〉에는 ‘전달’이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짓.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전달’이 ‘사람’이 아닌 ‘행위’를 의미하는 예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예를 찾기 힘들다. 또한 ‘보내기’ 역시 ‘일정한 처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외에 ‘어찌다가 간혹 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후자의 용례가 없고 사용례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전달’과 ‘보내기’를 ‘사람’의 의미를 가진 어휘로 간주하고 분석한다.

8) 본고에서는 이들을 [-행위]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지만 이것이 [+사람]의 의미 자질을 가진 명사가 [-행위]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는 주장은 아니다. 특정 명사의 절대적인 의미 자질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고에서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기준으로서 [+행위]와 [-행위]를 구분하고 있음을 밝힌다.

결합이 가능한 것은 ‘사람’이 아닌 ‘특성이 있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에 ‘-꾼’이 결합했을 때, 대부분은 파생어는 기존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실제로 <우리말샘>의 뜻풀이에 ‘뜨내기’와 ‘뜨내기꾼’은 의미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떠돌이’나 ‘나그네’ 등에 ‘-꾼’을 결합한 형태도 결합 전과 의미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 (9) 가. 그는 이곳저곳을 정처없이 다니는 (뜨내기, 뜨내기꾼)이다.  
 나. 그는 이곳저곳을 정처없이 다니는 (떠돌이, 떠돌이꾼)이다.  
 다. 그는 이곳저곳을 정처없이 다니는 (나그네, 나그네꾼)이다.

다만, ‘건달꾼’, ‘마름꾼’의 경우 <우리말샘>에 각각 “‘건달’을 낮잡아 이르는 말”, “‘마름’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 있으며 다음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아도 [낮춤]의 의미가 있는 듯하다.

- (10) 가. 그는 무시무시한 (건달, \*건달꾼)이다.  
 가’. 그는 방구석(?건달, 건달꾼)이다.  
 나. 그 분은 인자한 (마름, \*마름꾼)이었다.  
 나’. 그 인간은 인색한 (?마름, 마름꾼)이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사람]의 의미를 가진 선행 명사에 ‘-꾼’이 추가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형태적, 의미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극히 일부 파생 명사가 [+비해]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0)과 같은 특정 선행어와의 결합에서 [+비해]의 의미 자질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접사 ‘-꾼’이 [+비해]의 의미를 가질 가능성을 논의한 3.2.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 (11) 가. 만석, 천석

ㄴ. 께, 재주

(11)은 접사 ‘-꾼’의 의미 중 하나인 (1ㄱ)에 해당하는 예시들 중 일부이다. 편 의상 (1ㄴ)을 다시 쓴다.

- (1) ㄴ. -꾼 「006」 「접사」 ((일부 명사나 부사 뒤에 붙어)) ‘어떤 사물이나 특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께꾼. 만석꾼. 재주꾼. 천석꾼.

(11ㄱ)의 ‘만석’과 ‘천석’은 [-행위], [-사람]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어, 앞서 살폈던 모든 선행어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명사들이다. 이들은 곡식을 세는 양과 그 단위가 결합한 어휘로서 ‘많은 부피나 중량’ 또는 ‘많은 재산’을 의미한다. 즉, ‘만석’과 ‘천석’은 ‘-꾼’ 결합 이전에 이미 [+양(수량)]의 의미 자질과 [+많음]의 의미 자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11ㄴ)의 ‘꿔’와 ‘재주’는 [-행위], [-사람], [+양(수량)]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만석, 천석’과 동일하지만 [+많음]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다르다.

따라서, ‘만석, 천석’과 ‘꿔, 재주’를 구분하여 분석하되, 현재 논의되어야 할 핵심은 [-행위]의 자질을 가짐과 동시에 [+양(수량)]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는 명사가 ‘-꾼’의 선행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다<sup>10)</sup>.

앞서, ‘-꾼’ 선행어의 핵심은 [+행위]의 의미 자질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선행어가 [-행위]와 [+양(수량)]의 의미 자질을 가지는 경우 역시 ‘-꾼’의 선행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동사 ‘부라-’ 등과 연어 관계를 맺고 있어 [+행위]의 의미 자질을 가진 명사로도 볼 수 있지만 이들은 함께 (1ㄱ)의 예시 중 일부로서 ‘꿔꾼’과 ‘재주꾼’은 각각 ‘꿔를 자주 내는 사람’이나 ‘재주를 부리는 일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닌 ‘꿔가 많은 사람’이나 ‘재주가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의 선행어로 분류하여 논의한다.

10) [+많음]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인 접사 ‘-꾼’의 의미 분석에서 다룰 것이다.

## (12) 잠꾼, 사랑꾼

(12)는 사전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사용하는 ‘-꾼’ 파생 명사 가운데 ‘~이 많은 사람’으로 풀이될 수 있어, 선행어가 [+양(수량)]의 의미 자질을 가지는 것이다. ‘잠’이나 ‘사랑’은 ‘피’나 ‘재주’와 마찬가지로 ‘많은’이나 ‘적은’ 등의 양적 수식이 가능한 추상 명사이다. 이렇듯, 양적 수식이 가능한 추상 명사의 경우 접사 ‘-꾼’에 의한 파생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피, 재주, 잠, 사랑’ 등의 선행어가 [+행위]의 의미 자질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행위]가 ‘-꾼’ 선행어의 근본적인 의미 자질임을 고려했을 때, ‘피가 많다’는 ‘피를 자주 부리다’로 ‘재주가 많다’는 ‘재주를 자주 부리다’로, ‘잠이 많다’는 ‘잠을 자주 잔다’로, ‘사랑이 많다’는 ‘사랑을 자주 하다’로 환원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해석 및 환원의 가능성 ‘-꾼’의 [+많음]의 의미 자질 역시 [+반복]과 함께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천석꾼’, ‘만석꾼’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천석꾼’, ‘만석꾼’과 같이 [+많음]의 의미 자질을 이미 가지고 있는 어휘 중 ‘-꾼’ 결합이 가능한 다른 예를 찾기 어려워 비교·대조 분석은 할 수 없으나, 비교·대조군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천석꾼’, ‘만석꾼’과 같은 어휘의 생성이 일반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천(만)석꾼’이 현재는 ‘곡식 천석(만석)을 수확할 수 있을 정도의 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여 ‘~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하지만, 최초의 어휘 생성에서는 ‘-꾼’ 파생 명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인 ‘-꾼’ 파생은 선행어를 통해 ‘선행어에 함의된 행위’의 의미<sup>11)</sup>에, 접사 ‘-꾼’에 의해 ‘(선행어의 행위를) 자주(반복, 전문적으로)하는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파생의 방식을 거친다. 이를

11) 선행어에 함의된 행위는 선행어가 본래 가지는 의미를 기반으로 접사와의 결합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결합적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식과 같이 이러한 결합적 의미를 접사의 독립적 기여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선행어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접사 ‘-꾼’과 선행어의 상호작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만석꾼’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교를 위해 ‘도망꾼’과 함께 제시한다.

파생 명사	선행어 영역		접사 영역(-꾼)	
	선행어 (명사)	함의 행위	의미1	의미2
만석꾼	만석(을)	수확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사람
도망꾼	도망(을)	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사람

[도식 1] ‘만석꾼’, ‘도망꾼’의 생성 도식

‘만석’이라는 수량 표현이 ‘많은 양의 곡식’을 대표하는 고유명사와 같은 쓰임과 의미를 갖게 되며 이는 ‘수확의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확의 행위’를 매해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접사 ‘-꾼’을 통해 ‘만석꾼’이라는 파생어가 생성된다.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만석꾼’은 “많은 양의 곡식”의 ‘수확’을 매해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곡식 만석을 수확할 수 있을 정도의 땅을 가진 사람’으로 의미 변화를 거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수준의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꾼’ 선행어의 조건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 본 내용을 바탕으로 ‘-꾼’의 선행어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정리하고 확인해 보기로 한다.

### (13) 의미론적 조건

ㄱ. 일반 조건: [+행위], [-사람]

ㄴ. 특수 조건: ① ([-행위]), [+사람]

② ([-행위]), [+양(수량)]

앞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면 위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꾼’의 선행어는 ‘-꾼’이 가진 [+반복]의 의미 기능으로 인해 [+반복]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의미 자질을 일반적인 조건으로 요구한다. 또한, ‘-꾼’이 가진 [+사람]의 의미 기능으로 인해 ‘-꾼’의 선행어는 비인칭의 [-사람]의 의미 자질을 일반적인 조건으로 요구하게 된다.

한편, 선행어가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특수한 조건에서도 ‘-꾼’과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수 경우 가운데 첫 번째는 선행어가 [-행위], [+사람]의 의미 자질을 가진 경우이며 이 때, ‘-꾼’ 파생 명사는 대부분 파생 전 어휘 의미와 동일하지만 특수한 경우 [+비하]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특수 조건 두 번째는 선행어가 [-행위], [+양(수량)]의 의미 자질을 가진 경우이며 이 경우 선행어는 양적 수식이 가능한 추상 명사로 한정된다.

위 (13)을 조건으로서 일반화하려면 사전뿐 아니라 신어나 임시어로 논의를 확장했을 때 이외의 유형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손춘섭(2012)에서는 국립국어원 신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 신어 형성 접사의 생산성과 의미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가운데 접사 ‘-꾼’을 통해 생성된 파생 명사는 65개<sup>12)</sup>였으며 이 중 위 (13)의 조건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선행어는 다음과 같다.

(14) ㄱ. 전문, 초보

ㄴ. 빠릿

12)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다.

ㄱ. 1994년: 유객, 택견, 웃음, 범죄, 정치

ㄴ. 1995년: 정보사냥, 기업사냥, 회담, 절도, 감량, 요령, 경륜, 경마, 전문, 암벽, 정보, 박수, 절약, 위조, 포커, 민주화

ㄷ. 2000년: 유객, 호객, 택견, 글, 정보사냥, 기업사냥, 입담, 회담, 절도, 감량, 경륜, 빠릿, 경마, 전문, 살바, 암벽, 정보, 산, 박수, 절약, 포커, 식탐, 벽화

ㄹ. 2002년: 동지계, 신고, 내기, 난동, 거래, 주춤, 채취

ㅁ. 2004년: 누리, 경매, 초보

ㅂ. 2005년: 몰래제보, 영화해설, 승김통일, 캡처

ㅅ. 2012년: 걷기, 올레, 새치기, 말, 우리말사랑, 우리말참해

(14ㄱ)은 ‘-꾼’과 어울리기 힘든 명사들인데, (1ㄱ)에서 확인하였듯, 흔히 ‘-꾼’은 [+전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의 의미를 가진 접사에 완전히 중첩되는 ‘전문’이라는 선행어가 올 수 있다는 것이나 완전히 반대되는 ‘초보’라는 선행어가 올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사용례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낚시, 원정, 시위’ 전문꾼, ‘낚시 초보꾼’과 같이 행위와 관련된 특정 영역에서 ‘전문가’와 ‘초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파생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전문꾼, 초보꾼을 수식하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깊이 논의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14ㄴ)은 형태론적 특성이 앞선 선행어들과 다른 경우인데, ‘빠릿’은 소위 ‘비자립적 어근’으로 불리는 어근으로 ‘-하’와만 결합하며<sup>13)</sup> 명사나 부사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다만, ‘날랜 행동’이라는 의미에서 [+동작]이나 [+행위]의 의미 자질을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선행어의 형태론적 조건은 결론에 종합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선행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남았다. 그것은 바로 선행어 영역에서의 ‘함의 행위’에 대한 논의이다.

앞선 [도식 1]과 같은 방식으로 ‘낚시꾼’, ‘힘꾼’, ‘털령꾼’, ‘고기꾼’을 확인해 보자.

13) <우리말샘>에는 ‘뚫뚫하고 행동이 날래다.’라는 뜻풀이로 ‘빠릿빠릿하다’가, ‘빠릿빠릿하다의 어근’으로 ‘빠릿빠릿’이 등재되어 있다. ‘빠릿하다’와 ‘빠릿’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빠릿하다’는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14) 하지근(1985)에서도 ‘-꾼’이 행위명사 외에 ‘불구어근’과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예로 ‘배상-’과 ‘여마리-’를 들고 있다.

- 배상꾼: 거만한 태도로 자기의 몸을 아껴 할 일을 게을리하고 피만 부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배상하다: 좀스럽고 아니꼽다.
- 여마리꾼 → 염알이꾼: 몰래 남의 사정을 살피고 조사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염알이: 남의 사정을 몰래 알아냄.

이상을 확인해 보면, ‘여마리’는 불구어근으로 보기 힘들지만 ‘배상’은 불구어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배상꾼’의 어근과 ‘배상하다’의 의미가 상당히 다른데 이들이 같은 어근임을 확인하기 힘들다.

파생 명사	선행어 영역		접사 영역(-꾼)	
	선행어	함의 행위	의미1	의미2
낙시꾼	낙시(를)	하(는 행위들)	반복(적으로)	(하는)사람
힘꾼	힘(을)	쓰(는 행위들)	반복(적으로)	(하는)사람
덜렁꾼	덜렁	대(는 행위들)	반복(적으로)	(하는)사람
고기꾼	고기(를)	먹(는 행위들)	반복(적으로)	(하는)사람
		파(는 행위들)		
		굽(는 행위들)		
		잡(는 행위들)		

[도식 2] '낙시꾼', '힘꾼', '덜렁꾼', '고기꾼'의 생성 도식

‘-꾼’ 파생어는 선행어가 담당하고 있는 의미 영역과 ‘-꾼’이 담당하고 있는 의미 영역을 나누어 살필 수 있음을 앞선 논의를 통해 확인하였다. ‘-꾼’ 파생어는 ‘-꾼’의 선행어가 표면에 노출되고 노출된 선행어가 함의하고 있는 행위는 추론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선행어가 함의하고 있는 행위가 제한적이면 추론의 범위가 좁아 혼란스럽지 않지만 함의하고 있는 행위가 많게 되면 추론의 범위가 넓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파생어가 되어 버린다.

‘낙시’와 같이 ‘-하’가 결합하여 동사가 될 수 있는 명사 부류나 ‘힘’처럼 ‘쓰’와 같은 특정 동사와 연어 관계를 이루는 명사 부류 그리고 명사 부류는 아니지만 ‘덜렁’과 같이 특정 행위를 명확하게 함의하고 있는 부류 등은 파생어 형성 시 함의 행위가 명확하게 제한되며 생성이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고기’와 같이 ‘먹을 수도’, ‘팔 수도’, ‘구울 수도’, ‘잡을 수도’ 있는, 다양한 행위를 함의할 수 있는 어휘는 추론의 범위가 넓어져 생성이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생성되고 사용되는 어휘는 함의 의미가 제한될 수 있는 선행어로 한정될 확률이 높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면, 선행어의 의미 조건 중 하나로 ‘함의 행위의 제한’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것이 (13)에서 논의하는 ‘선행어의 의미론적 조건’과 같은 층위에서 논의되기는 힘들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함의 행위의 제한’은 정도성의 영역이며 수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함의 행위의 제한’을 ‘수의적인 조건’으로 (13)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를 포함하여 다시



정리하면 “-꾼’ 선행어의 의미론적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5) ‘-꾼’ 선행어의 의미론적 조건
- ㄱ. 일반 조건: [+행위], [-사람]
  - ㄴ. 특수 조건: ① ([-행위]), [+사람]  
② ([-행위]), [+양(수량)]
  - ㄷ. 수의 조건: 함의 행위의 제한성

### 3. 접사 ‘-꾼’의 의미와 조건

#### 1) 접사 ‘-꾼’의 의미

앞선 논의 과정을 통해 선행어의 의미와 조건을 두루 살펴보았다. 이 과정으로 우리는 사전 등재어를 바탕으로 한 ‘-꾼’의 의미 자질 가운데 일부인 [+행위]는 ‘-꾼’이 아닌 ‘-꾼’의 선행어가 가지고 있는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꾼’이 [+사람]의 의미 자질을 부여하는 것 역시 선행어의 일반 조건이 [-사람]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꾼’의 의미로 검증이 필요한 것들은 [+전문], [+습관], [+복수(모임)], [+낮춤] 등이 남는다. 이 가운데 [+전문]과 [+습관]은 앞서 선행어에서 논의했던 [+많음]과 함께 [+반복]으로 다룬다. [+낮춤]은 [+비하]로 다루기로 한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검토 및 분석할 ‘-꾼’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6) ㄱ. [+반복] ([+전문], [+습관], [+많음])  
ㄴ. [+복수] ([모임])  
ㄷ. [+비하]

위 (16)의 의미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한다.

## (1) [+반복] ([+전문], [+습관], [+많음])

앞서 선행어의 논의 과정에서 ‘-꾼’이 가진 [+반복]의 의미 자질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꾼’ 파생어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행위]의 의미 자질과 함께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반복]의 의미 자질이다. 특히 변영수(2012)에서는 ‘-꾼’ 파생어의 선행어근과 접사 ‘-꾼’의 의미를 분석하여 접사 ‘-꾼’이 [노동] → [빈도성] → [잘함] → [행위] → [보유] → [비해] → [사람]의 의미 파생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하였는데, 의미 자질의 명칭이나 의미 파생의 과정에 대한 동의 여부는 차치하고 [빈도], [잘함], [행위] 등이 일련의 의미 파생 과정으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즉, 본 연구에서 언급되고 검토되어야 하는 [+반복], [+전문], [+습관], [+많음]의 의미 자질은 근본적인 하나의 의미 자질로 포괄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의 뜻풀이처럼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습관적으로’, ‘즐거’, ‘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자 의미는 [+반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반복]은 [+많음]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꾼’이 가진 근본적인 의미 자질로 논의되기 적합하다.

앞서 확인했던 생성 도식에 [+반복]을 적용하여 실제 예들을 대입해 확인해 보자.

파생 명사	선행어 영역		접사 영역(-꾼)	
	선행어	함의 행위	의미1 [+반복]	의미2 [+사람]
소리꾼	소리(를)	하(는 행위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노름꾼	노름(을)	하(는 행위들)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재주꾼	재주(가)		많(은)	사람
	재주(를)	부리(는 행위들)	잘	(하)는 사람

[도식 3] ‘소리꾼’, ‘노름꾼’의 생성 도식

접사 영역의 의미를 [+반복]으로 상정하면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전문], [+습관], [+잘함], [+많음] 등의 의미까지도 도식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 (2) [+복수] 또는 [+모임]

‘-꾼’이 선행어가 함의하고 있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의 의미를 더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문제가 없을 경우, 특정 ‘-꾼’ 파생어가 ‘반복’이 아닌 “(어떠한 행위를) ‘위해’ ‘모인’”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논의의 편의상 이 부분에 해당하는 (1ㄷ)을 다시 쓴다.

- (1) ㄷ. -꾼 「004」 「명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구경꾼. 일꾼. 장꾼. 제꾼.

다음은 위 예시들의 사전 뜻풀이다.

- (17) ㄱ. 구경-꾼 「001」 「명사」 구경하는 사람.  
ㄴ. 일-꾼 「001」 「명사」 샅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  
ㄷ. 장-꾼 「001」 「명사」 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 또는 그 무리.  
ㄹ. 제-꾼 「001」 「명사」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모인 사람.

(17) 가운데 ‘일꾼’과 ‘장꾼’은 접사 영역에 있어 [+반복]과 [+사람]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 (1ㄷ)의 뜻풀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구경꾼’과 ‘제꾼’이다. 만약 ‘구경꾼’이나 ‘제꾼’이 다른 ‘-꾼’ 파생어들과 비슷하게 해석되려면 ‘구경하는 행위’나 ‘제를 지내는 행위’에 [+반복]과 관련된 의미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구경꾼’이나 ‘제꾼’에서는 [+반복]과 관련된 [+전문], [+습관], [+많음] 등의 의미를 찾아보기 힘들다. 보다 자세한 비교를 위해 생성 도식을 통해 ‘구경꾼’, ‘제꾼’, ‘일꾼’, ‘장꾼’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파생 명사	선행어 영역		접사 영역(-꾼)	
	선행어	함의 행위	의미1 [+반복]	의미2 [+사람]
구경꾼	구경(을)	하(는 행위를)	*즐거 *반복(적으로)	(하는)사람
제꾼	제(를)	지내(는 행위를)	*즐거 *반복(적으로)	(하는)사람
일꾼	일(을)	하(는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사람
장꾼	장(에서)	사(는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사람
	장(에서)	파(는 행위를)		

[도식 4] ‘구경꾼’, ‘제꾼’, ‘일꾼’, ‘장꾼’의 생성 도식

‘일꾼’과 ‘장꾼’은 접사 영역에서의 [+반복]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구경꾼’과 ‘제꾼’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반복]과 관련한 의미를 넣을 수 없다. 결국 ‘구경꾼’이나 ‘제꾼’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공백은 선행어의 영역에서 형상화되는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완전한 공백으로 보지 않고 의미의 퇴색으로 보고자 한다. 즉, [+반복]에 해당하는 의미 자질은 경우에 따라 퇴색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어떠한 행위를 하는 사람’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사전의 뜻풀이처럼 “(어떠한 행위를) 위해 ‘모임’”의 의미를 새롭게 갖게 된다고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구경꾼’이나 ‘제꾼’을 설명하기 위한 서술의 방식일 뿐이지 ‘-꾼’ 파생어 중 일부에 [(행위를) +위함]이나 [+모임]의 의미 자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접근은 지금까지 살펴 본 ‘-꾼’ 파생어의 근본적인 의미와 생성의 도식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기각될 수밖에 없다.

한편, ‘모임’이라는 뜻풀이가 [+복수]나 [+모임(집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있는데, 특히 (17c)의 ‘장꾼’의 경우 뜻풀이에 ‘그 무리’가 포함됨으로써, [+복수]나 [+모임(집단)]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장꾼’을 포함한 이들 예시는 [+복수]나 [+모임(집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들 파생어에 실제로 [+복수]를 나타내는 접사 ‘-들’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접사 ‘-떼’를 결합한 예를 결합 전과 비교했을 때 이들이 복수나 집단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18) ㄱ. 단 한 명의 (장꾼, \*장꾼들, \*장꾼떼)만 남았다.  
 ㄴ. 단 한 명의 (구경꾼, \*구경꾼들, \*구경꾼떼)만 모였다.  
 ㄷ. 단 한 명의 (일꾼, \*일꾼들, \*일꾼떼)도 남지 않았다.

만약 ‘-꾼’이 ‘복수’ 또는 ‘집단’의 의미를 갖는다면 위와 같은 분포적 특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꾼’ 파생 명사가 [+단수]와 [+복수]의 의미를 모두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한국어 명사가 가진 일반적인 특성일 뿐이다.

- (19) ㄱ. (단 한 명의, 오천만) 국민이 그들과 함께 한다.  
 ㄴ. 경찰 (단 한 명, 오백 명)이 왔다.

‘-꾼’ 파생어 역시 ‘국민’이나 ‘경찰’ 등과 같이 [+단수]나 [+복수] 모두로 기능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명사인 것이지 ‘-꾼’으로 인해 선행어에 [+복수]나 [+집단]의 의미가 부여되어 ‘복수 명사’나 ‘집단 명사’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 (3) [+비하]

앞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꾼’의 근본적인 의미 자질로 [+반복]을 확인하였다. 사실, 어떠한 행위의 반복이 [+낮춤], [+비하]의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복]은 [+잘함], [+즐김], [+전문], [+많음] 등과 같은 [+긍정]의 의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의미적 파생이 이루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의 반복’이 [+비하]의 의미를 획득한 경우라면 그 ‘비하’의 대상은 ‘반복’이 아닌 ‘행위’에 있을 것이다.

원활한 논의를 위해 (1ㄷ)을 다시 쓴다.

- (1) ㄷ. -꾼 「005」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 낮잡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과거꾼. 건달꾼. 도망꾼. 뜨내기꾼. 마름꾼. 머슴꾼. 모사꾼.

사전에서는 접사 ‘-꾼’의 의미 기능 중 하나로 위와 같은 [+비해]의 의미 기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위 뜻풀이에서는 ‘일부 명사’의 특성이나 조건을 특정하지 않아 어떠한 경우에 [+비해]의 의미가 추가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위 예시들을 보면 실제로 [+비해]의 의미가 추가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20) ㄱ. 과거꾼, 전달꾼, 도망꾼, 뜨내기꾼, 마름꾼, 머슴꾼, 모사꾼

ㄴ. 난봉꾼, 노름꾼, 말썽꾼, 잔소리꾼, 주정꾼

(20ㄱ)은 (1ㄷ)의 예시로 사전에서 [+비해]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제시된 예들이다. (20ㄴ)은 (1)의 ‘-꾼’ 다의어 가운데, (1ㄷ)을 제외한 나머지 다의어들의 예시들 중 [+비해]의 의미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뽑은 것이다. 연구자의 직관으로는 (20ㄱ)보다 (20ㄴ) 쪽에서 [+비해]의 자질이 보다 명확하다. 이러한 이유는 (20ㄴ)의 경우 선행어와 선행어의 합이 행위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꾼’ 파생어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해]의 의미 자질은 ‘-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행어에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선행어의 의미와 조건을 살폈을 때, 선행어에 [+사람]의 의미 자질이 있는 경우 중 일부에서 선행어에는 비하의 의미가 없지만 ‘-꾼’ 파생어에는 비하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앞에서 선행어가 [-행위]이면서 [+사람]의 의미 자질을 가지게 되는 경우 ‘뜨내기-뜨내기꾼’, ‘나그네-나그네꾼’과 같이 대부분 ‘-꾼’ 결합 전후의 의미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10)의 ‘전달꾼’이나 ‘마름꾼’의 경우 [+비해]의 의미가 있는 듯했다. 즉, 특정한 조건에서는 선행어가 아닌 접사 ‘-꾼’이 [+비해]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접사 ‘-꾼’이 [+비해]의 의미를 더할 조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 접사 ‘-꾼’이 [+비해]의 의미를 더할 조건

‘-꾼’ 파생 명사의 선행 어근이 [+비해]의 의미를 가지지 않았지만 ‘-꾼’ 파생

명사가 [+비해]의 의미를 가진다면 이때 [+비해]의 의미는 접사 ‘-꾼’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변영수(2012)에서는 ‘-꾼’ 파생어에 대응하는 한자어가 있을 때 [비해]의 뜻을 나타낸다고 보았다<sup>15)</sup>.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시각에 일부 동의한다<sup>16)</sup>. 다음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이다.

(21) 한자어 접사에 의한 상대어가 존재하는 경우

ㄱ. 접사 ‘-꾼’: 문상공, 보행꾼, 종교꾼, 소개꾼, 세도꾼, 정치꾼, 유식꾼, 토론꾼

ㄴ. 한자 접사: 문상객, 보행객, 종교인, 소개인, 세도가, 정치가, 유식자, 토론자

(21ㄱ)에 대응하는 (21ㄴ)을 비교해서 살펴 보면, (21ㄱ)의 ‘-꾼’ 파생어가 한자 접사 파생어에 비해 상대적인 [+비해]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자어 접사 파생어가 존재하고, 한자어 접사 파생어가 널리 사용된다는 조건하에서 ‘-꾼’ 파생 명사는 [+비해]의 의미를 추가한다.

이번에는, 대응하는 한자 접사 파생어가 없는 경우에도 ‘-꾼’ 파생어가 [+비해]

15) 변영수(2012:224-225)의 각주 19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꾼’ 파생어에 대응하는 한자어가 있을 때 [비해]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즉, ‘노동자, 강경생, 문상객, 보행객, 소개인’ 등에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해 이 어휘에는 감정이나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꾼, 강경꾼, 문상공, 보행꾼, 소개꾼’처럼 ‘-꾼’이 결합하면 그러한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 되어 가치 판단 측면에서 [비해]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비해]의 의미는 [선행어 근+꾼] 파생어가 생성하는 기본적인 의미에 [비해]의 의미를 덧붙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을 낮추어 이르기 위해 독립된 뜻갈래로 작용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16) 본 연구에서 동의하는 내용은 대응하는 한자어가 있는 경우 ‘-꾼’ 파생어 쪽이 [비해]의 의미를 갖는 시각이다. 단, 이러한 시각으로 [비해]의 의미를 가진 ‘-꾼’ 파생어를 분석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동의하기 힘들다. 먼저, 변영수(2012)에서는 [비해]의 의미를 가진 ‘-꾼’ 파생어를 ‘가치판단’에 의한 생성으로 설명하였는데, ‘가치판단’은 [비해]의 동기가 될 수 있으나 [비해]의 의미가 발생하는 방식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분석 내용에 동의하기 힘들다. 두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대응 한자어가 없는 경우에도 [비해]의 의미를 가진 ‘-꾼’ 파생어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들이 [비해]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 세 번째로, 선행어가 [+부정]의 의미를 가진 행위를 함의하고 있어, 이미 [비해]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파생어들까지 ‘-꾼’으로 인한 [비해]로 본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살펴 보자. 이 경우는 [+사람]의 의미 자질을 가진 일부 선행어에 ‘-꾼’이 결합하는 경우 [+비해]의 의미가 추가되는 경우로서 ‘건달꾼’, ‘마름꾼’ 등이 있었다. 편의상 (10)의 예를 다시 쓴다.

- (10) ㄱ. 그는 무시무시한 (건달, \*건달꾼)이다.  
       ㄱ'. 그는 방구석(?건달, 건달꾼)이다.  
       ㄴ. 그 분은 인자한 (마름, \*마름꾼)이었다.  
       ㄴ'. 그 인간은 인색한 (?마름, 마름꾼)이었다.

‘건달’과 ‘마름’은 [+사람]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는 명사로서 본 연구의 논의에 따르면 ‘선행어의 의미론적 조건’ 중 ‘특수 조건’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응되는 한자어 접사 파생어가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낮춤’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경우 역시 ‘-꾼’이 요구하는 [+행위]의 관점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건달’이나 ‘마름’은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로서 표면적으로 ‘사람’이 드러난다. 또한 이렇게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전문적 행위나 특성 역시 가지고 있을 테지만 이들은 ‘사람’이라는 특성 뒤에 가려져 표면적인 의미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명사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꾼’이 결합할 수 없지만 비일반적인 방식으로 ‘-꾼’을 결합시키게 되면 ‘-꾼’이 가지고 있는 [+반복]의 의미 자질이, 선행어에 내재되어 있던 ‘행위’를 표면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퇴색되고 단순히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여 ‘마름’에 ‘-꾼’이 결합하여 ‘마름꾼’이 되는 경우를 도식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선행어				
형태	표면적 특성	내재 의미		
마름	사람	지주를 대리함		
		소작인을 관리함		
		미움		
		두려움		
		...		
+				
접사				
형태	접사 의미 1	접사 의미 2		
-꾼	사람	행위 반복		
↓				
파생어	선행어	접사	선행어	접사
	표면적 특성	접사 의미 1	내재 의미	접사 의미2
마름꾼	사람	사람	지주를 대리함	행위 반복
			소작인을 관리함	
			미움	
			두려움	
			...	

[도식 5] '마름꾼'의 생성 도식

‘마름’이라는 명사는 표면적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이며 동시에 지주를 대리하고 소작인을 관리하는 행위 또는 미움이나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내재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에 ‘-꾼’이 결합하면 ‘-꾼’의 의미 가운데 하나인 [+반복]의 의미로 인해 내재되어 있는 마름으로서 ‘행위’가 표면화된다. 이렇게 되면 ‘마름’이 가지고 있던 ‘인격체로서의 가치’는 퇴색하고 ‘마름으로서의 행위’를 초점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대조군이 있는 문장으로 치환하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 (22) ㄱ. 그 녀석은 마름이 아니야. 마름꾼이지.  
 ㄴ. 그 녀석은 마름으로서의 인격적 가치를 가지지 않았어. 단순히 마름이 하는 일을 할 뿐이지.

(22ㄱ)은 (22ㄴ)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전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3) ㄱ. 그 녀석은 선생이 아니야. 선생꾼이지.

ㄴ. 그 녀석은 선생으로서의 인격적 가치를 가지지 않았어. 단순히 선생이 하는 일을 할 뿐이지.

또한 이러한 시각하에서는 ‘의사꾼’, ‘검사꾼’과 같은 비문법적인 파생어라고 여겨졌던 표현들 역시 이해가 가능하다<sup>17)</sup>.

(24) ㄱ. 그는 의사가 아니야. 의사꾼이지.

ㄴ. 그는 검사가 아니야. 검사꾼이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접사 ‘-꾼’이 [+비해]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5) ㄱ. 대응하는 한자어 접사(-자, -인, -가, -객 등) 파생어가 존재하는 경우

ㄴ. 선행어가 ‘(특정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는 경우

---

17) 이와 관련하여 권정숙(2014)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권정숙(2014:25)에서는 ‘의사’ 류 어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교수님, 목사님, 의사님으로 불리는 것에는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존경]의 대상이므로 -님이 붙여 질 수 있으나 -꾼을 결합할 수는 없다. -꾼은 자체가 [+낮춤]의 의미가 포함되어서 [+존경]의 대상에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은 ‘교수꾼, 목사꾼, 의사꾼’이 사용되는 실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는 ‘-꾼’이 [비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단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꾼’의 분포 양상과 분포 가능성을 확인하여 ‘-꾼’ 파생 명사의 선행어와 접사 ‘-꾼’의 의미를 살피고 이를 통해 ‘-꾼’ 파생 명사의 형성 조건과 형성 양상을 확인해 보았다. 연구 결과, ‘-꾼’에 선행하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행위], [-사람]의 의미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특수한 경우 [+사람] 또는 [+양(수량)]의 자질을 가진 요소와 결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파생 명사의 결합적 의미를 기존의 논의와 달리 접사의 독립적 역할로만 해석하지 않고, 선행어가 본래 가진 의미를 기반으로 접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결합적 의미를 선행어 영역에서 다룸으로써,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선행어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접사의 기여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아울러, ‘-꾼’의 핵심 의미 자질은 [+반복]과 [+사람]으로, 일부 경우에만 [+비하]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 (25) 접사 ‘-꾼’ 선행어의 의미론적 조건

- ㄱ. 일반 조건: [+행위], [-사람]
- ㄴ. 특수 조건: ① ([-행위]), [+사람]  
② ([-행위]), [+양(수량)]

### (26) 접사 ‘-꾼’ 선행어의 형태론적 조건

- ㄱ. 의미론적 조건이 일반 조건일 경우: 품사 조건 없음
- ㄴ. 의미론적 조건이 특수 조건 중 [+사람] and 의미 변화가 없음: 명사 한정
- ㄴ'. 의미론적 조건이 특수 조건 중 [+사람] and [+비하]: 명사 한정 and 대응되는 ‘-자, -가, -인’ 파생어 필요
- ㄷ. 의미론적 조건이 특수 조건 중 [+양(수량)]: 추상 명사 한정

### (27) 접사 -꾼의 의미

- ㄱ. 기본 의미: [+반복], [+사람]

ㄴ. 특수 의미: [+비하]

(28) 접사 ‘-꾼’이 [+비하]의 의미를 더할 조건

- ㄱ. 대응하는 한자어 접사(-자, -인, -가, -객 등) 파생어가 존재하는 경우
- ㄴ. 선행어가 ‘(특정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는 경우

본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꾼’ 파생 명사의 형성 조건을 반영한다면, 사전에서의 접사 ‘-꾼’의 기술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29) ‘-꾼’ 파생 명사의 형성 조건을 고려한 다의어 ‘-꾼’의 사전 기술

- ㄱ. -꾼 「001」 「접사」 「어근이 형상화할 수 있는 행위」에 ‘자주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살림꾼. 소리꾼. 심부름꾼. 씨름꾼.
- ㄴ. -꾼 「002」 「접사」 ((양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추상 명사 뒤에 붙어)) ‘많은 양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꾀꾼. 재주꾼.
- ㄷ. -꾼 「003」 「접사」 ((사람의 의미를 가진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 ‘낮잡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건달꾼. 마름꾼.
- ㄹ. -꾼 「004」 「접사」 ((동일 어근에 ‘-자’ 또는 ‘-인’ 또는 ‘-가’ 파생어가 있는 경우)) ‘어근이 형상화할 수 있는 행위’에 ‘자주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낮잡아 이르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소개꾼. 정치꾼.

본 연구는 사전에 등재된 ‘-꾼’ 접사 파생어를 중심으로 ‘-꾼’과 그 선행어의 의미적 관계를 규명하고, 파생 명사의 형성 조건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의 범위를 사전에 등재된 어휘로 제한하였기에, 말뭉치 자료나 신어 및 임시어 등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에 대한 분

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사전에 등재된 ‘-꾼’ 접사 파생어뿐 아니라,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약 3억 어절) 내에서 관찰되는 ‘-꾼’ 접사 파생어와 신어 및 임시어를 포함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논의가 ‘-꾼’ 파생 접사의 전반적인 형성 원리를 설명하는 데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지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우리말샘

- 손춘섭(2012), 「[+사람] 신어 형성 접사의 생산성과 의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39, 한국어의미학회, 253-289쪽.
- 이철우(1983), 「인칭접미사의 의미분석—용인성을 중심으로」, 『文淵』 8, 건국대학교, 311-322쪽.
- 하치근(1985), 「국어 인칭접미사 연구」, 『국어국문학』 6,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71-194쪽.
- 나은미(2004), 「접미사의 존재론적 의미 분류—명사 접미사를 대상으로」, 『한국어 의미학』 14, 한국어의미학회, 75-95쪽.
- 송혜진(2007), 「국어 인칭접미사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선·박주형·임종주(2015), 「신어의 인칭 접미사 연구」, 『동남어문논집』 39, 동남어문학회, 5-33쪽.
- 변영수(2012), 「접미사 ‘-꾼’의 의미」, 『겨레어문학』 49, 겨레어문학회, 203-235쪽.
- 권정숙(2014), 「한국어 접미사 ‘-꾼’의 어휘정보」, 『한국어 의미학』 44, 한국어의미학회, 1-28쪽.
- 다키구치게이코(2013), 「한국어 인칭접미사 ‘-꾼’에 대한 일본어 대응어 양상」, 『어문논총』 58, 한국문학언어학회, 78-104쪽.
- 푸량(2019), 「한국어 인칭접미사 ‘-꾼’의 의미적 선호와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어문논집』 86, 민족어문학회, 107-132쪽.

## ■ Abstract

### The Meaning of the Affix ‘-kkun’ and Its Preceding Elements - Conditions for the Formation of ‘-kkun’ Derived Nouns -

Choi, You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stribution patterns and possibilities of the affix ‘-kkun’, which is discussed as one of the “personal suffixes” in Korean, to clarify the meanings of the preceding elements and the affix ‘-kkun’ in derived nouns, and to identify the conditions for the formation of ‘-kkun’ derived nouns. The study objectively analyzed the semantic conditions of the preceding elements that can precede the affix ‘-kkun’ and the semantic features of the affix itself.

First, it was confirmed that, for a specific word to precede the affix ‘-kkun’ and form a derived noun, it must satisfy the general condition of having the semantic features [+ACTION], [-PERSON]. If the general condition is not met, it was found that the word must satisfy special conditions, such as having the semantic features ‘([-ACTION]), [+PERSON]’ or ‘([-ACTION]), [+QUANTITY]’. Additionally, the more limited the range of actions implied by the preceding word,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it combining with ‘-kkun’. This “limitation of implied action” was presented in this study as a facultative condition for the preceding word.

Furthermore, this study categorized the core semantic features of the affix ‘-kkun’ as [+REPETITION] and [+PERSON], and clarified that the previously

---

\* Senior Research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E-mail: icarusyoun@kangwon.ac.kr

discussed semantic feature [+DEROGATORY] cannot be considered a basic semantic feature of ‘-kkun’.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derivation of [+DEROGATORY] in ‘-kkun’ derived nouns is a secondary result, occurring only in specific case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more objective semantic understanding of Korean affixes and affixal derivation by examining not only the meanings of the affix ‘-kkun’ and its preceding elements but also the conditions for their combination and the semantic schema formed during this process.

Keywords: -kkun(-꾼), Affix, Suffix Person, Personal Suffix, Derivative, Derived Noun, Meaning, Preceding Element, Root

논문접수일 2024.11.15. / 심사기간 2024.12.01.~2024.12.13. / 게재확정일 2024.12.20.